어린이 책꽂이

▲오디세우스의 모험=유럽문학에서 가장 오래된 장편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그리스 신화의 본고장인 그리스에서 직접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다시 쓴 그림책. 미지의 세계에서 펼쳐진 오디세우스의 방랑과 모험을 특유의 상상력과 표현력으로 생생하게 되살렸다.

〈미래 M&B·9천원〉

▲세상을 바꾼 위대한 책벌레들(제2편)=세상을 보는 눈과 마음을 책을 통해 키운 7명의 위인들과 요즘 어린이들의 가상 대화를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일깨운다. 온 정신을 책에만 집중한 이황, 책을 통해 사물의 이치를 배운 서경덕, 책을 읽다 생기는 의문은 메모하여 해답을 찾은 뉴턴 등의 진솔한 독서이야기가 실려 있다. 〈뜨인돌 어린이·9천원〉

▲내 맘대로 할거야=엄마들의 최대 고민거리인 '아이의 떼쓰기 습관'을 재미있는 동화로 풀어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고쳐 나가도록 도와준다. 떼쟁이 다원이와 마술사 할머니, 그리고 꼬마 도깨비라는 흥미로운 인물들과 콜라주 기법의 화려한 그림이 더해져 읽는 재미를 준다. 〈스콜라·7천500원〉

▲날개의 꿈 이상=26년 7개월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다 갔지만 뛰어난 시와 소설, 수필을 남긴 이상의 삶과 문학세계를 담았다. 묘사나 기교보다는 자의식의 흐름에 집중한 그의 독특한 문학세계를 엿볼 수 있다. 〈이룸·8천500원〉

▲조선의 글씨를 천하에 세운 김정희=추사체라는 독특한 서법을 일군 서예가이자, 문인화가인 김정희의 일생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그렸다. 그가 남긴 작품들을 함께 수록해 서예의 아름다움과 문인화의 멋을 느낄 수 있다. 〈아이세움·9천500원〉

"톨스토이는 나를 꼭두각시로 이용했다"

천재를 키운 여자들 잉에 슈테판 지음

1890년대 클라라 베스트 호프는 뮌헨과 파리의 유명 조각가들을 찾아다니며 조각을 배웠다. 로댕연구소에서 학업을 마친 그녀는 고향 보르프스베데로 돌아가 작업실을 열었고 유명인들의 흉상을 제작하며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하지만 1901년 한 남자와 결혼하면서 그녀는 후세인들에게 그저 '시인 릴케의 아내'로만 기억되고 말았다.

세상에 이름을 알린 남성들의 뒤에는 언제나 그들을 사랑한 '여성들의 희생'이 있었다.

독일 훔볼트대학 독문과 교수로 재직중인 잉에 슈테판이 쓴 '천재를 키운 여자들'은 한 시대를 이끈 이른바 '천재'들과의 결혼과 사랑으로 자신의 재능을 잃어버린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다.

저자는 특히 남성들의 천재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왜곡된 모습으로 알려진 일부 여성들의 삶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온전하게 복원해 냈다.

로댕에게 수많은 영감을 줬지만 자신의 삶은 피폐했고 결국 정신병원에서 숨을 거둔 카미유 클로델(사진 왼쪽)과 슈만과의 결혼으로 평탄치 못한 음악생활을 해야 했던 클라라.

저자는 그녀들이 남긴 편지와 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남성들에 남긴 방대한 자료에 비하면 비길 수 없이 적은 분량이지만 지금까지처럼 남성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의 인생 속에서 오랜 기간 흔적들이 지워졌던 첫번째 부인 밀레바 마리치를 보자. 물리학자를 꿈꾸던 그녀는 아인슈타인의 동료 과학자로서, 연인으로서 연구를 진행하며 공동이름으로 뛰어난 논문들을 발표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녀의 이름은 사라지고 말았다.

자신의 명성을 위해 독일로 떠난 남편을 대신해 1차 세계대전의 와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생활의 노예가 된 그녀는 어느 순간 '과학자'라는 이름을 버려야 했고, 아인슈타인이 두번째 부인과 사는 동안 그녀는 미친 아들과 함께 20년을 부대끼다 모두에게 버림받은 채 숨을 거뒀다.

한 시대를 이끈 천재들과 결혼으로 새장 속 박제가 된 여인들 이야기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82세 때 러시아를 표류하다 변두리 간이역 아스타포프(지금의 톨스토이역)에서 객사했다. 그와 48년동안 결혼생활을 한 아내 소피아 안드레예브나는 이 위대한 예술가의 말로에 책임을 져야했고 오랜 세월 '악처'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저자는 그녀가 일기를 보여주며 결혼 전 피아니스트로, 소설가로 예술적 소양이 높았던 그녀는 결혼 후 톨스토이라는 천재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 하나의 꼭두각시로 이용돼 왔다고 주장한다.

18살 천재 소녀와 42살 천재 조각가의 만남으로 유명한 카미유 클로델. 조각상 '생각하는 사람'의 모델이 되었을 뿐 아니라 로댕의 작품들에 대담한 정신을 불어넣은 그는 젊은 시절을 '로댕의 정부(情婦)'라는 인식 아래 살았고 결국 20년 동안 갇혀있던 정신병원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아야 했다.

그밖에 책속에는 화가였지만 남편의 모델로 만족해야 했던 로비스 코렌트의 아내 샤르로테 베렌트의 '나의 한창 때를 로비스에게 바쳤다'는 고백이 담겨 있으며 마르크스의아내 예나, 피츠 제럴드의 아내 젤다 세이어, 헤세의 아내 니논 아우슬렌드 등도 만날 수 있다.

저자는 "여성들의 잠재된 생산력을 발굴해 내고, 잊혀지거나 의도적으로 제거된 여성의 몫을 밝히기 위해 책을 썼다"고 말했다. 〈이룸·1만3천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등장 인물 심리 분석 덧붙인 유럽 오페라 50편

불멸의 오페라 II 박종호 지음

정신과 전문의이자 오페라 해설가, 클래식 음반 전문매장 '매월당' 주인인 박종호씨가 2년 만에 오페라 50편을 담아 '불멸의 오페라 II'를 펴냈다.

저자의 지극한 오페라 사랑은 이미 애호가 수준을 넘었다. 이번에도 1천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소개서를 내면서 오페라를 집대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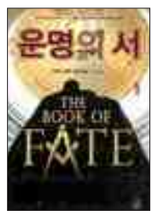
1권에서 주로 이탈리아 오페라를 다뤘다면, 2권에는 로시니, 모차르트, 바그너의 작품과 프랑스, 독일의 낭만 오페라를 소개한다. 단순히 줄거리를 소개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저자는 주요 장면을 비롯한 연극·음악적 핵심 요소를 짚어낸다. 정신과 전문의답게 등장 인물의 심리 분석을 더하기도 했다.

부록으로 오페라 명지휘자 200명의 특징과 주요 레퍼토리가 포함됐다. 저자가 음악 정규교육을 받지 않았던 만큼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놓은 것이 장점. 지난해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피가로의 결혼' 관람기는 따끈따끈한 보너스다. 〈시공사·4만8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美 대통령 암살사건 엮은 미스터리 팩션

운명의 서 브래드 멜처 지음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을 움직이는 저명 인사들이 세계적 비밀결사인 '프리메이슨'의 일원이라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프리메이슨의 의도대로 지어진 계획 도시라는 음모설도 꾸준히 제기돼오고 있다.

'운명의 서'(전 2권)는 이같은 가설을 토대로 쓰인 팩션(fact와 fiction의 합성어) 소설이다.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출간돼 뉴욕타임스, 퍼블리셔스 위클리, 아마존닷컴 등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소설은 재선을 앞둔 미국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에 한 행사에 나섰다가 암살 위협을 받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대통령 비서실 차장이 총에 맞아 숨지고, 보좌관 웨스는 얼굴 반쪽이 일그러지는 부상을 입는다. 암살범 니코는 프리메이슨 척살의 신념에 불타는 인물.

몇 년 후 웨스는 워싱턴 D.C. 거리에 숨겨진 프리메이슨의 상징, 대통령이 남긴 크로스워드 퍼즐, 200년 된 토머스 제퍼슨의 암호 등을 단서로 그날의 진실을 파헤치며 탈옥한 니코를 쫓는다. 〈랜덤하우스·각 권 9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내 인생 한권의 책

한상복 '배려'

옛사람들은 감을 수확하면서 몇 개는 반드시 새들의 몫으로 남겨두곤 했다. 이 '까치밥'을 두고 한 시인이 넉넉한 '조선의 마음'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궁핍 속에서도 기꺼이 나눔의 미학을 실천해 왔다. 그러나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삶의 여백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여유와 관용보다는 경쟁과 생존의 논리가 더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볼 때가 많다.

이러한 때에 접하게 된 한상복씨의 '배려'(위즈덤하우스)는 행복의 키워드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자의 주목을 끌었다. 이 책은 직접화법 대신에 작중인물들의 생생한 일상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야기 형식을 빌린 이러한 은유적 담론이 오히려 더 직접적인 감동을 자아내게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그러나 더 큰 장점은 독자로 하여금 '배려'의 의미를 통해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성찰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이다.

주인공 '위'는 입사 수석에 고속 승진을 해온 샐러리맨이다. 그러나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던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한 시련은 혼란 그 자체였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된 프로젝트 1팀으로 발령을 받은 데에다가 가정마저 해체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부서에서 만난 인물들을 통해 참다운 성공의 조건은 경쟁이 아니라 배려라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한다.

성공의 조건은 배려다

저자는 이 책에서 '소셜 아스퍼거(Social Asperger)'를 합성한 '사스퍼거'라는 개념으로 현대인의 병리를 진단하고 있다. 남의 입장을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사스퍼거 증후군을 지적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배려의 의미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본질적 차원에서 배려는 생명의 원리이자 우주의 섭리이다.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모든 생명체는 근본적으로 전체를 위해 기여함으로써 상생과 조화의 세상을 구현한다. 다시 말해 공생의 바탕이 되는 것은 배려와 희생이며, 아집과 욕심이 앞설 경우 세상은 필연적으로 갈등과 부조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둘째, 개인과 조직 차원에서 배려는 성장의 촉진제가 된다는 사실이다. 심리학자 크리스 라반은 배려란 '나와 상대방 모두가 더 높이 날 수 있는 도약점'이라고 강조한다. 최근 국내외 기업가들이 화두로 삼고 있는 '윤리경영'의 핵심 또한 배려라는 덕목으로 집약된다. 인간 중심의 '역지사지 리더십'이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주는 필수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배려 윤리는 교육 분야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한다. 청소년은 희망의 씨앗이며, 그들에게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치를 심어주는 일은 곧 세상을 환하게 밝혀가는 단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역(周易)에 나오는 "씨 과실은 먹지 않고 남겨두어야 한다(碩果不食)"라는 말에는 씨앗이야말로 미래의 풍요를 기약하는 희망의 본질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홍시 하나 남겨둘 줄 아는 넉넉한 마음, 이제 그 배려의 미학을 되살려 가는 것이 우리 교육자의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 장 환
〈전남도교육감〉